

2027  
고2 문학  
미래엔

## 2027 고2 문학 미래엔 | 1(2)(1) 꽃 직전 보강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!

### AI 직전 보강

자, 이번 시험 범위인 이육사의 「꽃」과 조지훈의 「낙화」를 복습해 볼까? 먼저 「꽃」에서 ‘꽃 맹아리’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?



긍정적 이미지로, 광복의 기운을 뜻해요! ‘제비 떼’도 유사한 의미이고요.



이와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는 ‘하늘도 다 끝나고’, ‘비 한 방울 나리잖는’에 나타나요.

맞아. 그러면서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‘꽃’이 피어난다며 극한 상황에서의 생명력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.

표현법과 시의 형식적인 특징도 기억나니? 각 연이 모두 4행으로 배열되어 있는데, 이게 어떤 효과를 주지?



운율을 형성해서 음악성을 느끼게 해 주고,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해요! 그리고 ‘발강계’와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도 기억나요.



작품을 꼼꼼하게 공부했구나. 「꽃」은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.

다음으로 조지훈의 「낙화」를 보자. 1연의 ‘꽃이 지기로소니 / 바람을 탓하라’에는 어떤 표현법과 태도가 담겨 있을까?



설의적 표현이 쓰였고,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줘요. 그런데 밤에서 새벽, 아침으로 시간의 변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, 화자의 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알려주세요!



1~3연에서는 꽃이 지는 풍경과 밝아 오는 아침의 풍경이 나타나지? 그리고 4~6연에서는 방 안에서 지켜보는 낙화가 나타나. 그런데 그다음 연부터는 '고운 마음', '울고 싶어라'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어. **시선의 전환이 외부 풍경에서 내면으로 이동한 것이지!**



아하!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. 그 외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?

각 연을 모두 2행으로 배열하여 **형태적 안정감**을 부여한다는 것과 **색채 대비**가 나타난다는 것, 화자의 정서가 **아름다움의 덧없음**을 느끼면서 **결국 삶의 무상함과 비애로 이어진다는 점**을 꼭 기억해 두렴!



2027  
고2 문학  
미래엔

### 2027 고2 문학 미래엔 | 1(2)(1) 꽃 지문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,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.

#### 지문 분석

**동방**(‘화자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은신하고자 하는 평화로운 도피처를 의미하는군.’과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‘동방’은 우리나라를 뜻하며, 도피처가 아닙니다.)은 **하늘도 다 끝나고**(  : 부정적 이미지)

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

[ 오히려 **꽃**(강인한 생명력, 광복에 대한 희망)은 **발강계**(  : 색채 이미지 → 감각적 표현) 피지 않는가 ](  : ‘설의적 표현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

▶ 극한의 환경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

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

눈 속 깊이 **꽃 맹아리**(  : 긍정적 이미지, 광복의 기운)가 움직거리

제비 떼 **까망게** 날아오길 기다리나니

마침내 **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!**(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처럼 다가올 밝은 미래를 확신함. ‘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만 했던 화자의 비애감이 반영되어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▶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굳건한 의지

한 바다 북판 **용솨음**치는 곳

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**꽃성(城)**(광복을 맞이한 미래의 조국)에는

나비처럼 취하는 **희상(回想)의 무리들아**(우리 민족. ‘화자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호명하며 미래의 환희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

▶ 광복을 이룬 기쁜 미래에 대한 기대

- 이육사, 「꽃」

지문 분석

꽃이 지기로소니

바람을 **타하라**.(설의적 표현: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함. '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꽃을 지게 만든 자연물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.'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[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
하나 둘 스러지고

**귀촉도 울음 뒤에**

**머언 산이 다가서다.**(‘청각적 이미지 이후에 시각적 이미지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밝아오는 아침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]([ ]: 시간의 변화(밤→새벽→아침)에 따른 화자의 시선 이동)

▶ 1연~3연: 꽃이 지는 풍경과 밝아 오는 아침의 풍경

[ 촛불을 꺼야 하리

꽃이 지는데 ]([ ]: 관조적 태도)

꽃 지는 그림자  
뜰에 어리어

[ **하이얀**( : 시각적 이미지. 색채 대비) 미닫이가

우런 붉어라. ]([ ]: ‘흰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시선에 닿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.’와 같은 함정을 파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▶ 4연~6연: 방 안에서 지켜보는 낙화

**물혀서 사는 이**(<보기>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문제에 ‘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민족적 현실에 좌절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겠군.’과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의

고운 마음을

아는 이 있을까  
저어하노니

[ 꽃이 지는 아침은

울고 싶어라. ]([ ]: 아름다움의 덧없음 → 삶의 무상함과 비애)

▶ 7연~9연: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삶의 비애  
- 조지훈, 「낙화」

2027  
고2 문학  
미래엔

### 2027 고2 문학 미래엔 | 1(2)(1) 꽃 지문 확인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# 지문 확인

**동방**(‘화자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은신하고자 하는 평화로운 도피처를 의미하는군.’과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‘동방’은 \_\_\_\_\_를 뜻하며, 도피처가 아닙니다.)은 **하늘도 다 끝나고**(\_\_\_\_: \_\_\_\_적 이미지)

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

[ 오히려 **꽃**(강인한 \_\_\_\_\_, \_\_\_\_\_에 대한 희망)은 **발강계**(\_\_\_\_: \_\_\_\_ 이미지 → 감각적 표현) 피지 않는가 ](\_\_\_\_: \_\_\_\_\_ 표현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

▶ 극한의 환경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\_\_\_\_\_

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

눈 속 깊이 **꽃 맹아리**(\_\_\_\_: \_\_\_\_적 이미지. \_\_\_\_\_의 기운)가 음작거려

제비 떼 **까망게** 날아오길 기다리나니

마침내 **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!**(지킬 수밖에 없는 \_\_\_\_\_처럼 다가올 \_\_\_\_\_를 확신함. ‘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만 했던 화자의 비애감이 반영되어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▶ \_\_\_\_\_를 기대하는 굳건한 의지

한 바다 북판 **옹숫음치는** 곳

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**꽃성(城)**(\_\_\_\_\_을 맞이한 미래의 조국)에는

나비처럼 취하는 **회상(回想)의** 무리들아(\_\_\_\_\_. ‘화자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호명하며 미래의 환희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

▶ 광복을 이룬 기쁨 \_\_\_\_\_에 대한 기대  
- 이육사, 「꽃」

지문 확인

꽃이 지기로소니

바람을 **땃하라**.(\_\_\_\_적 표현: 꽃이 지는 \_\_\_\_\_에 순응함. '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꽃을 지게 만든 자연물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.'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[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
하나 둘 스러지고

**귀촉도 울음 뒤에**

**머언 산이 다가서다.**(‘\_\_\_\_\_ 이미지 이후에 \_\_\_\_\_ 이미지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밝아오는 아침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]([ ]: \_\_\_\_\_의 변화(밤→새벽→아침)에 따른 화자의 시선 이동)

▶ 1연~3연: \_\_\_\_\_는 풍경과 밝아 오는 아침의 풍경

[ **촛불을 꺼야 하리**

꽃이 지는데 ]([ ]: \_\_\_\_\_적 태도)

꽃 지는 그림자  
뜰에 어리어

[ **하이얀**(\_\_\_\_: \_\_\_\_\_ 이미지. 색채 \_\_\_\_\_) 미닫이가

우런 **붉어라**. ]([ ]: ‘흰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시선에 닿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.’와 같은 함정을 파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▶ 4연~6연: 방 안에서 지켜보는 \_\_\_\_\_

**물혀서 사는 이**(<보기>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문제에 ‘\_\_\_\_\_의 암울한 민족적 현실에 좌절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겠군.’과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의

고운 마음을

아는 이 있을까  
저어하노니

[ **꽃이 지는 아침은**

울고 싶어라. ]([ ]: 아름다움의 덧없음 → 삶의 \_\_\_\_\_과 \_\_\_\_\_)

▶ 7연~9연: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삶의 \_\_\_\_\_

- 조지훈, 「낙화」

2027  
고2 문학  
미래엔

### 2027 고2 문학 미래엔 | 1(2)(1) 꽃 내신 암기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# 암기용

#### 1. 「꽃」 제재 개관

갈래	[현대시], 자유시, 서정시
성격	[저항적], [의지적], 상징적
제재	꽃
주제	[비극적]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밝은 [미래]에 대한 희망
특징	① [상징적]인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. ② [색채]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. ③ [대립적]인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[미래]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음.

#### 2. 작품 구성

1연	극한 상황 속에서도 피는 [꽃]의 생명력
2연	[꽃]이 필 날(밝은 [미래])이 올 것이라는 확신
3연	[꽃성]([광복된 조국])에서 기쁨을 누릴 날에 대한 기대

#### 3. 시어의 상징적 의미

동방	'나'가 사는 터이자 어려운 상황이 닥친 곳, [빼앗긴 조국], [우리나라]
꽃	강인한 [생명력], 어려운 상황에 대한 [극복 의지], 광복에 대한 [희망]
꽃 맹아리	[광복]의 [기운]
꽃성	[희망찬 미래]의 [조국], [광복]을 맞이한 [조국]

#### 4. 작품에 나타난 표현법과 형식

표현이나 형식		
각 연을 모두 [4행]으로 배열함.	[영탄적] 어조를 반복함.	[시각적] 심상을 활용함.
↓	↓	↓
• [운율]을 형성하고 음악성을 느낄 수 있게 함. • 형태적 [안정감]을 부여함.	간절한 [기대], [힘], 강한 [의지]와 같은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강조함.	강인한 [생명력]과 광복에 대한 [희망]을 부각함.

5. **작가** 맥락을 고려한 제목의 의미

저항 문학의 대표 시인인 이육사가 **일제**에 저항하며 **지사적**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, 「꽃」은 조국을 빼앗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에서도 밝은 **미래**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'꽃'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6. 「낙화」 제재 개관

갈래	현대시, 자유시, 서정시
성격	묘사적, <b>애상적</b>
제재	낙화
주제	<b>떨어지</b> 는 꽃을 보며 느끼는 <b>삶의 비애</b>
특징	① 각 연을 모두 <b>2행</b> 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<b>안정감</b> 을 부여함. ② <b>설의적</b> 표현으로 <b>자연의 섭리</b> 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냄. ③ <b>시간의 흐름</b> 과 <b>시선의 이동</b> 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.

TEST 1단계

1. 「꽃」 제재 개관

갈래	□□시, 자유시, 서정시
성격	□향적, □지적, 상징적
제재	꽃
주제	□□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밝은 □래에 대한 희망
특징	① □□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. ② □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. ③ □립□인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□래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음.

2. 작품 구성

1연	극한 상황 속에서도 피는 □의 생명력
2연	□이 필 날(밝은 □래)이 올 것이라는 확신
3연	□성(□복된 조국)에서 기쁨을 누릴 날에 대한 기대

3. 시어의 상징적 의미

동방	‘나’가 사는 터이자 어려운 상황이 닥친 곳, □앗긴 조국, □리□라
꽃	강인한 □□력, 어려운 상황에 대한 □복 □지, 광복에 대한 □망
꽃 맹아리	□복의 □운
꽃성	□망찬 미래의 □국, □복을 맞이한 □국

4. 작품에 나타난 표현법과 형식

표현이나 형식		
각 연을 모두 □행으로 배열함.	□□적 어조를 반복함.	□□적 심상을 활용함.
↓	↓	↓
• □율을 형성하고 음악성을 느낄 수 있게 함. • 형태적 □정 □을 부여함.	간절한 □다 □, 강한 □지와 같은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강조함.	강인한 □명□과 광복에 대한 □망을 부각함.

5. □가 맥락을 고려한 제목의 의미

저항 문학의 대표 시인인 이육사가 □제에 저항하며 □□적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, 「꽃」은 조국을 빼앗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에서도 밝은 □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‘□’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6. 「낙화」 제재 개관

갈래	현대시, 자유시, 서정시
성격	묘사적, □상□
제재	낙화
주제	□어□는 꽃을 보며 느끼는 □의 비□
특징	① 각 연을 모두 □행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□정□을 부여함. ② □의적 표현으로 □연의 □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냄. ③ □간의 □름과 □선의 □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.

O / X 문제

【1~7】 「꽃」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,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.

1. '하늘도 다 끝나고'는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. .... (O / X)

2. '꽃'은 흑독한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광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.  
..... (O / X)

3. '꽃 맹아리'는 광복의 기운을 나타내는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이다. .... (O / X)

4. '발갡게'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. .... (O / X)

5. '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!'라는 구절에는 다가올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.  
..... (O / X)

1. O 2. O 3. O 4. X 5. O

2027  
고2 문학  
미래엔

## 2027 고2 문학 미래엔 | 1(2)(1) 꽃 복습 필기용 지문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'나만의 필기'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!

### 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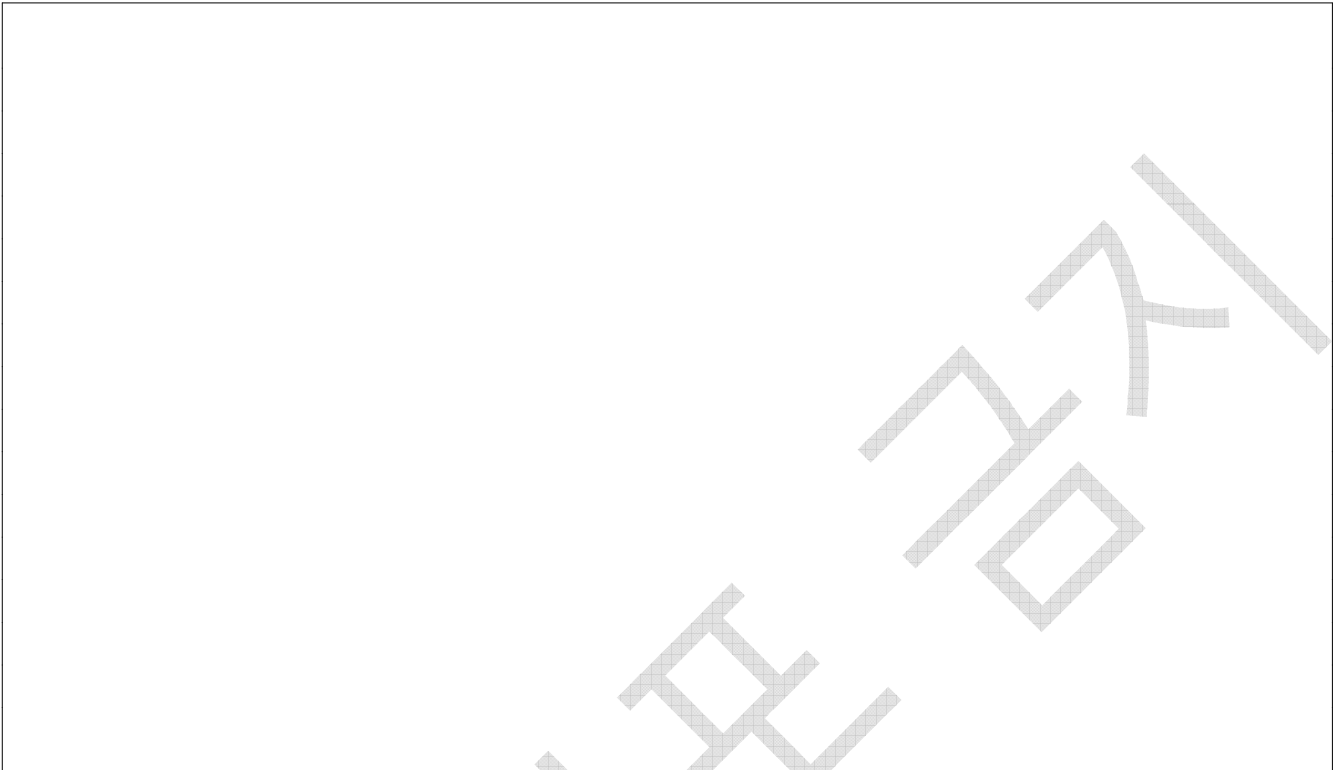
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
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 
오히려 꽃은 발갳게 피지 않는가  
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

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 
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 
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 
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!

한 바다 북편 용솨음치는 곳  
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(城)에는  
나비처럼 취하는 회상(回想)의 무리들아  
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

- 이육사, 「꽃」

핵심 정리



지문

꽃이 지기로소니

바람을 탓하라.

주렴 밖에 성긴 별이

하나 둘 스러지고

귀촉도 울음 뒤에

머언 산이 다가서다.

촛불을 꺼야 하리

꽃이 지는데

꽃 지는 그림자

뜰에 어리어

하이얀 미달이가

우런 붉어라.

묻혀서 사는 이의

고운 마음을

아는 이 있을까

저어하노니

꽃이 지는 아침은

울고 싶어라.

- 조지훈, 「낙화」